

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 살아'



평화의 소중함 깨우치는 교향곡 '바비 야르'

최근 90세를 맞은 세계적인 노장 지휘자 엘리아후 인발은 대작에 전착중이다. 최근 그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도쿄도 심포니 오케스트라(도쿄 매트루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3일에 걸쳐 말리의 가장 큰 대작이자 생전 최고의 성공작인 '교향곡 8번'을 연주했다. 뮌헨신음악축제전당 초연 당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8명의 솔리스트, 대규모 성인합창단, 어린이 합창단까지 1000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참여해 '천인 교향곡'이라는 이름이 붙은 8번 교향곡은 우주와 같은 스케일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장 큰 규모의 작품이다.

이 곡 뿐만이 아니다. 최근 타이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에 이어 2023년부터는 계관지휘자를 맡아 정력적으로 타이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인발은 이 오케스트라와 작년 2월 라흐마니노프의 '죽음의 섬',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를 공연하며 타이완 청중들에게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사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KBS교향악단과 똑같은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린다. 인발은 한번도 이 곡들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으나 그가 1936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 지휘자라는 점에서 선곡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내가 이 작품을 처음 감상한 건 모스크바에 처음 유학갔던 1996년의 일이었다. 당시 러시아의 저명 유대연극인 솔로몬을 기리는 페스티벌이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렸는데, 그날 2부의 핵심 곡이 비올리스트로 유명한 유리 바슈메트가 지휘봉을 잡고 베이스 솔리스트가 협연한 '바비 야르'였다.

바비야르는 사실 1962년 초연 때부터 정부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던 곡이었다. 당시 반체제 시인 예브게니 옌투센코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작품으로 바비야르는 우크라이나 키예프(키이우)에서 벌어진 나치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유대인 학살사건(당시 소련)을 모티브로 삼아 비판의식을 갖고 만들었다.

바비야르는 키이우의 절벽 이름이다. 2차 세계 대전 중 우크라이나 시가전에서 많은 병력을 잃은 나치 독일군이 그 원인의 배후로 지목한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1941년 9월 29일과 30일 단 이틀만에 이곳에서 3만 4000명을 학살하는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1943년 소련군이 키이우를 재탈환하기 전까지 유대인과 집시들,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소련군 포로를 총살한 죽음의 계획이었다.

이런 작품이 소비에트 러시아에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느껴졌으나 문제는 저항시인인 옌투센코의 시를 사용해 독일 나치군의 만행과 학살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소련 내에서 끊임없이 자행돼온 반유대주의와 차별, 그리고 정치수용소로 보내졌던 소련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사건에 대해서도 통렬히 비판해 심기를 건드렸다.

오페라 '트렌스크의 맥베드 부인' 때문에 당시 가장

스탈린의 비위를 건드렸고 소련 당국의 주다노프로부터 비판받아 자아비판을 해야했던 쇼스타코비치는 당국이 좋아할 만한 교향곡 5번 '혁명'을 작곡해 큰 성공을 거둔 후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 교향곡은 거대 권력에 반항하고 행태를 꼬집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인도 유대인인 쇼스타코비치는 1악장에 "유대인 협우자들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당당히 쓰면서 "사람들은 옌투센코가 시를 발표하기 전부터 바비야르를 알고 있었지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그렇지만 내가 시를 읽는 순간 침묵은 깨졌다. 예술은 침묵을 파괴하는 법이다"라고 일갈했다.

한국에서는 홍석원이 지휘한 광주시향이 2023년 10월 26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초연 해 뜻깊은 첫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유대인 지휘자가 포디엄에 서는 역사적인 최초 공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베이스와 대규모 합창이 필요한 이 곡은 정치적인 사건 배경도 그렇고, 러시아어도 생경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연주되지 않았던 레퍼토리였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 말러의 8번 교향곡 '천인'의 뒤를 잇는, 대규모 합창단과 솔리스트가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장엄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음악평론가>

의료칼럼



이준형 시엘병원 원장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 임신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난임 시술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19년 대비 36.7% 증가했다. 커리어를 쌓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신을 미루는 것은 현대 여성의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물학적 시계는 그 선택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의학이 발전했으니 언제든 임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훨씬 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NEJM(2025년)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난자를 이용한 시험관아기 시술(IVF)의 생존아 출생률은 35세 미만 43.1%로 시작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38~40세 19.0%, 41~42세 9.4%, 그리고 43세 이상(42세 초과)은 3.2% 수준에 머문다. 국내 통계에서도 44세 임신율 9.9%, 45세 이상 4.5%로 보고되어 고령 임신의 현실을 뒷받침한다.

가임력 보존의 골든타임을 위하여

반대로 20대의 젊은 기증자로부터 난자를 공여받을 경우 산모의 연령과 관계없이 성공률은 약 50~60%로 비교적 높게 유지된다. 이는 임신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자궁의 나이보다 '난자의 생물학적 나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궁은 40대에도 임신을 유지할 역량을 가질 수 있지만 난자 자체의 노화가 임신 성공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다.

가임력을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검사가 AMH(항뮌리관호르몬)이다. 흔히 '난소 나이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AMH 검사는 소량의 채혈만으로 가능하고 생리 주기와 무관하게 언제든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식이 필요 없어 바쁜 직장인도 부담이 적다. 대개 5~10분 내외의 채혈로 검사가 끝나며 결과는 보통 며칠 내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를 통해 난소 예비력과 향후 가임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할 수 있다.

정부는 여성들이 가임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통해 AMH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임력 보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가치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이다.

검사 결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난자 동결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동결 당시의 나이'가 효율성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미국 보조생식기술학회(SART)의 대규모 연구(Fertility & Sterility, 2021)에 따라

면 건강한 아이 1명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난자 수는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몇 번 더 시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시기의 난자일수록 임신 성공률이 높고 유산 위험이 낮으며, 결과 또한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40대 후반 출산 사례를 접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실패를 반복한 과정이 있거나 난자 공여 등 의학적 도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3세 이후 본인 난자 체외수정의 생존아 출생률이 3%대라는 현실은 의학적으로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뜻이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도 의료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가능한 한 늦기 전에 대비하자'라고 정직하게 안내하는 것 역시 환자를 위한 진료라고 믿는다. 너무 늦은 시기의 반복 시술은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매우 크다. 임신 계획이 matang 않더라도 가임력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난임 전문의로서 권장하는 가임력 보존의 최적기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이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떨어져 마음고생이 커질 수 있고 너무 이른게 준비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난자 동결은 임신을 늦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의 선택권을 남겨두는 방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활용해 간편한 AMH 검사부터 시작해보길 권한다.

기고

AI시대 인간의 길



장현우 예술문화융성포럼 위원 문화기획자

가치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더 이상 '언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앞에 놓인 '지금'의 문제이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다. 요즘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낙관도 하며 정동기에서 철기시대로, 산업혁명과 대량생산에 의한 충격보다 더 강하고 새롭게 변화될 문명을 기대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향후 3년, 혹은 5년, 10년 안에'라는 문명 변화에 대한 예측을 일반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인류는 씨족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근대 산업 사회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속도를 '세대' 단위로 경험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문명 발전은 무어의 법칙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정선희 회장이 2028년 말까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라인을 60%인 3만대 이상 로봇으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 상징적 사건이다. 역대 연봉을 받는 노조원의 인건비를 대신해, 몇 배의 효율을 가져올 로봇의 배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노조의 반발과 함께 인간의 일자리 소멸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다. 중기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부들이 생존을 위해 들고 일어나 만든 '빨간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몸부림은 대동령의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발언과 배치된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곧바로 개인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전과 다른 속도에 당황하겠지만, AI 시대의 도래를 단순한 문명 스트레스가 아닌 삶의 패러다임 변화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은 처음에는 새로운 일자리와 역할을 찾아 방황하겠지만, 결국 오랫동안 짊어져온 삶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갈 수 있는 세상에 다다를 것이다. 원하는 원치 않든, 현재의 문명이 흘러온 시간이 사라지듯 인간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상상해 본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내-존재'라 불렀다. 인간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규정한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더 이상 노동의 굴레에 묶이지 않고, 자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삶이 소중하듯 미래의 삶 또한 장단점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긍정을 상상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씨족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그리고 이제 AI 사회로. 인간의 미래는 언제나 인간을 위해, 인간 스스로 개척해 갈 것이다.

내일 종말의 세상을 겪게 될지, 아니면 유토피아적 삶이 펼쳐질 것인지는 곧 알게 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이다. 두려움에 움츠러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역사는 늘 후자를 선택한 이들의 발자취로 채워져 왔다.

AI 시대는 단순히 기술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다시금 자기 자신을 묻는 시대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인간은 이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존재로 거듭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단순히 기계와 인간의 경쟁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다. 기술은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불안보다 긍정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전환기에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다.

社說

정쟁 불모 삼는 국힘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막혀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고 안건 9개 가운데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만 표결하고 나머지 8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을 담은 전남광주특별법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두 법안 모두 의결이 시급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삼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남광주특별법 표결 반대 대한 국민의힘의 논리는 지역 형평성이다. 대전충남, 대구경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두 지역 특별법은 자신들의 반대로 법사 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대전충남만 하더라도 행정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했다. 이제 와서 지역민들의 일부 반대 의견을 속도 조절을 이유로 사비를 거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빼앗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승리가 확

실시되는 대구경북은 오히려 지역 단체장 출마 입지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누가 반대하느냐"며 항의하자 뒤꿈치뭉이를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필리버스터로 전남광주특별법 통과를 막는 것이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전체 국민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할 현안이다. 1987년 출범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권력구조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더구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비단 광주·전남만의 현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12·3 불법비상계엄을 막은 것도 결국은 5·18 정신이 밑바탕이 됐다는 것을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체감하지 않았는가.

필리버스터로 언제까지 법안 통과를 막을 수도 없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적의원 5명의 3 찬성이라는 절차에 따라 한 건씩 처리하면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꼴이 된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중단하길 바란다.

혼선 부추기는 전남 농정에 농심 명든다

전남에서 대파 가격이 폭락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산하고 있지만 전남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진도와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민들은 대파 가격이 폭락해 한 달전부터 산지 폐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산지 대파 가격은 평년보다 25%, 2년 전보다는 40% 가량 떨어졌다. 재배 농민들은 농협을 통해 구매해 폐기가 가능하도록 시군과 진남도가 나뉘리라 해 발이나 장고에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향후 가격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하락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농민들의 또 다른 불만은 ASF 발

병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도내에서 세 차례 ASF가 발생했고 특정 사유에서 ASF 바이러스 전파자가 검출됐는데도 후속 조치가 커녕 어떤 사유가 문제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다. 바이러스 검출 업체를 비공개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일일이 사유 업체에 문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락한 농산물의 폐기 조치는 가격 동향을 더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가족 전염병에 대한 정보 비공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역당국은 ASF 바이러스가 반드시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전염병 특성상 신속한 정보 공개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無等鼓

10만부 넘게 팔린 김신지 작가의 에세이 '제철 행복'은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내볼 것을 권한다. "한 해를 잘 보낸다는 건 계절이 지금 보여주는 풍경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이기에 "한 해를 사계절이 아닌 '이십사계절'로 촘촘히 겪는 일은 곧 눈앞의 계절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기회"를 선물해 번 찾아온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탄탄한 글쓰기를 바탕으로 절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저자는 '제철 축제'도 적어놓았다.

'춘분'(3월20일)에는 동네 구석구석으로 '봄찾기' 산책이 나서고, 청명(4월5일)엔 산책로에서 1년간 지켜볼 '내 나무'를 정해보는 식이다.

우수(2월 19일)엔 어떤 제철 음식을 먹을지 생각해보고 말하는데 작가에겐 봄의 절기 동안 씹새래한 달래장으로 밥을 비벼 먹는 일, 여름장국을 내어놓는 백반집을 알아두고 찾아가는 일, 봄비를 기다리며 돌미나리전을 먹는 게 일상이다. 커다란 꽃처럼 잎을 활짝 펼친 '봄동'을 사다가 곁 절이를 해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제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음식이다. 최근 봄 음식으로 인기를 모으는 건 '봄동 비빔밥'. 두툼쿠가 휩쓸고 간 SNS에는 지금 다양한 '봄동 비빔밥' 레시피가 즐비하다. 열풍의 시작은 2008년 KBS '1박 2일' 영광 편에서 강호동이 봄동 비빔밥을 양푼 채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봄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 '봄맞이'처럼 봄이면 소환되는 영상으로 올해는 젊은 세대가 호응하며 더 화제가 됐다.

11월~3월이 제철인 봄동은 비타민C, 철 속재도 적어놓았다. 베타카로틴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섬유질 함량이 높아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70%가 해남군과 진도 인근에서 생산되는데 올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다 산지 병해 피해까지 겹쳐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한다.

김신지 작가의 말처럼 올해는 '해마다 열매를 기다리게 되는 나만의 스텐다'의 연례행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소소한 것이어도 좋으니 우선 경칩(3월5일)과 춘분을 할 일부터 찾아보자. 물론 맛있는 제철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포함해서.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